

'복지 사각지대 제로, 우리의 힘으로'

도내 14개 시군 복지기동대장·담당공무원 등 실천 다짐

전북자치도 및 시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 공유

전북자치도가 도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실천 다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공연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14개 시·군 복지기동대장(243개 읍면동)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기동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 등에 대한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 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복지기동대의 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실천 다짐 대회는 읍·면·동 복지기동대장 등 200여 명과 대원들이 참여했으며, 사회복지 관계기관인 전

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주중), 전북사회복지관협회(회장 노영용) 등이 참여하여 모두가 복지기동대를 응원하며 한 마음 한뜻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인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 실천 다짐이 매우 뜻깊다"라며, "소외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드리는 데 읍·면·동 복지 기동대장과 대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환

경복지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관의 지역복지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실천 다짐에 이어 도와 시·군의 복지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우수사례의 공유회가 이어졌다.

도 우수사례로는 서양열 사회서비스 원장이 '전북 복지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발표했다.

전북 복지지원 플랫폼은 도내 산재한 다양한 복지혜택과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민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도는 이를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도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군의 우수사례로는 김제시가 2016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복지기동대의 추진 노하우를 공유했고, 군산시는 '우리 동네 흥반장'이라는 특색있는 이름의 생활 돌봄 복지서비스를 소개했다.

이어지는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청년 멘토로 알려진 김영식 세 자녀 출신 지원재단 이사장이 희망과 도전에 대한 유쾌하고 생동감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강영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 건국장은 "이번 다짐 대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복지기동대가 우리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서 자리를 굳건히 해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전복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회용품은 NO!, 다회용품은 YES!

전북자치도, 전주 신시가저서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복커넥트와 함께 전주 신시가저 공공기관 일원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용품 컵은 NO!, 다회용품 컵은 YES!'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청과 KBS 전주방송총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도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회용품 순환 시스템 홍보와 자원순환 실천 교육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다회용품 순환 시스템이란, 음료를 외부로 가져갈 경우 보증금 1천 원을 내고 다회용품에 음료를 담아간 뒤, 무인반납기를 통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스템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신시가저에서 도민 300여 명에게 다회용품 순환 시스템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다회용품 사용 앱을 설치하면 다회용품 컵 보증금 1천 원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음료 쿠폰을 제공하

는 이벤트를 진행해 다회용품 사용 및 반납방법을 홍보했다.

현재, 전주 신시가저에서 순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브라운오델리, 밥스터, 올드스터프, 꿀비, 인피스, I got everything 전북도점점, 어울림카페 전북경찰청점, 백다방 KBS점, 텐퍼센트 KBS점 총 9개소이며, 도는 참여업체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전북자치도는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운동으로 매일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운영해 왔으며,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명품사 내 다회용품 컵 도입 및 일회용품 반납금지급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 등 '일회용품 없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복지국장은 "우리는 일회용품 컵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다회용품 컵 사용이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다회용품 사용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 공연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제로,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14개 시·군 복지 기동대장(243개 읍면동)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천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

/이만호 기자

예비수소전문기업 14개사 선정

자치도, 수소전문기업 육성 위해 2년간 총사업비 18억원 지원

전북자치도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할 예비수소기업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의 대상기업 14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수소전문기업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수소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소 관련 기업 중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을 갖춰 수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도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수소융합알라이언스)의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을 확보했으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도내 예비 수소기업들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기관)와 함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보유시설·재무현황 등에

대한 2차 현장심사, 기업경영환경, CEO 리더십, 성장목표·전략, 지역사회 기여도,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주)비나텍 △(주)플라스타익스 △(주)비나에프씨 △(주)테라리스 △(주)가온셀 △(주)아에스 △(주)한국에너지기술 △(주)유니콤 △(주)성현 △(주)대우전자부품 △(주)야미 △(주)넥스트에너지 △(주)바이옴 △(주)모나 주식회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수행 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역별, 기업별 상황에 맞는 패키지 형식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공동관이 조성될 국내 최대 수소바탕인 H2 MEET(9월 예정)에 참여할 비용을 지원받아, 브랜드 인지도 상승, 네트워크 강화, 최신 기술 소개의 기회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철 자연재난 파수꾼 재난상황전파 총력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시 신속한 방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곧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재난 예·경보 및 마을방송, 재난 문자 등을 적극 활용,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 재난대비 가용자산을 동원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엘니노 현상에 따른 세계 기후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피해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미리 비상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자치도에서도 재난 상황 전파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는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29일 정수군에 규모 3.5(초기 규모 4.1로 전파)의 지진이 발생해 정수군,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4개 시군에 기상청 지진정보와 연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1,080개 마을에 지진 상황 및 대비요령 등을 자동전파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여름철 발생한 폭염상황을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와 연계해 도내 재난방송을 총동원해 자동방송한 결과 도내 폭염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재난 상황 시 재난상황 필요성과 효과가 더욱 입증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북자치도는 재

난 예·경보 통합방송 플랫폼을 설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도내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 시설 3,952개소에 시간 지연 없는 일제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긴급 상황 시도·시·군 장비 이중화로 중단없이 도민들이 신속·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도는 지난해 전북지방환경청과 홍수재난 공동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국가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110개소의 폐쇄회로 TV(CCTV)를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고 홍수 경보 시 해당 지역에 재난 상황을 전파하도록 홍수재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도의 노력은 지난 4월 30일 환경부에서 주재한 국가홍수 안전정책포럼에서 홍수재난대비 기관 간 협업 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나해 이어 올 여름도 엘니노 현상으로 기온이 예전보다 높고, 집중호우 또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고 있다."며 "도에서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 재난방송 전파체계를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해 도민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경영능력 우수' ... 전북자치도, 농식품부 우수후계농 111명 선정

8년 연속 전국 1위... 청년농 등 농업인 총 980명 선발해 집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영능력이 우수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가장 잘하는 지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잡았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농식품부 주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111명이 선정되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444명 중 25%를 차지한 것인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치이고, 한 해에 100명 넘게 선정된 자치단체는 전북자치도가 유일하다.

특히, 우수후계농 선정자 111명 중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73명으로 66%에 달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의 제1번 전략과제인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목표 달성에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영농기록, 교육 이수 실적, 공동브랜드 출하실적, 영농계획 달성도, 경영 규모 및 소득, 위생관리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엄격한 심

사를 통해 선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영농자금 5억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과 별도로 최대 2억 원의 영농규모 확대 자금을 연리 0.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융자금은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농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문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인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일반후계농(18~50세 미만) 159명 △이년에 선

발된 우수후계농 111명 △청년 후계농(18~40세 미만) 673명 △정복형 청년창업농(40~45세 미만) 37명 등 총 98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 등 후계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우수후계농 최다 선정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영농현장에서 묵묵히 재물을 해내고 계신 청년농업인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며, 경영능력 우수성을 인정받은 쾌거이다."며, "앞으로도 영농기반 임차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다양한 농업인 육성시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여름철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등 산림 병해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8월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방제 대책본부는 산림 병해충 예방 방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시·군 병해충 방제사업 지도, 돌발해충에 대한 긴급 진단 및 현지조사, 지

역주인 대상 산림 병해충 관련 홍보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해마다 도내 산림과 농림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산너벌레 등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에 대해 공동방제의 날을 운영하고, 농업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산림 병해충은

미국흰불나방 1,201ha, 갈색날개매미충 906ha, 미국산너벌레 191ha를 포함해 총 3,147ha가 발생했다.

이에, 올해는 가장 피해가 심했던 흰불나방에 대해 4월부터 사전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찰을 통해 발견되는 즉시 알덩이 및 유충을 제거하고 가로수에 예방 나무 주사 투여를 하는 등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세계한상네트워크 통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오늘 전북자치도 백년포럼 세번째 초청강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백년포럼'의 세 번째 특별강연이 11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전남대 JS글로벌 한상연구원 이장섭 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이 원장은 국내외 한상기업의 현황을 전하고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기업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하는 구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투자유치 전략, 전북 식품정책 총 발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해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겠다"며, "주변 산림과 가로수 등 병해충 피해가 의심될 경우 산림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차 대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내외 경제인 3,000여명이 모인다.

전북연구원은 세계한상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효과 4,53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11억원, 고용 유발효과 6,242명으로 집계했다.

한상(韓商) 또는 한상기업(韓商企業)은 재외동포 700만 명 중에서 무역, 상공업, 자영업, 글로벌 기업 임직원 등 전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한민족 동포를 의미한다.

이만호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의 미래 세대와 지역 경제를 위한 중요한 토론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 중인 세계한상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 전북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